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대학생의 음주 관련요인이 음주행태에 미친 영향

정 명 숙*

The Effects of Factors Related with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on Drinking Behavior for Public Policy Implications

Myung-Suk Jung*

요 약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대학생의 음주관련요인이 음주행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음주와 관련된 요인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이 음주태도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음주요인의 스트레스, 음주기대, 교우관계, 자아통제, 가족영향은 대학생의 음주태도와 음주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대학생의 음주와 관련된 요인이 음주행태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간의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한다.

▶ Keywords :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 음주태도, 음주행동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positively the effect of related with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on drinking behavior public policy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 theory and preceding research, I assumed that the elements related with drinking such as stress, friend relationship, drinking expectation, self-control, family effect have effects on drinking attitude and drinking behavior.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stress, friend relationship, drinking expectation, self-control, and family effect which are drinking elements show the meaningful difference on drinking attitude and drinking behavior. In this study, I researched the relative influence of various variables in drinking

• 제1저자 : 정명숙
• 투고일 : 2011. 06. 14, 심사일 : 2011. 06. 22, 게재확정일 : 2011. 07. 13.
* 고구려대학 사회복지과(Dept. of Social Welfare, Koguryeo College)

behavior as elements related with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upon these study result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political implications as the alternatives.

▶ Keywords : stress, friend relationship, drinking expectation, self-control, family effect, drinking attitude, drinking behavior

I. 서론

알코올의 오·남용은 대학생들의 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사회문제이다. 국내외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음주를 하며, 폭음과 과음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런 대학생들의 과도한 음주는 심리적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약화시켜 현실도피를 가능케 하므로 학생들이 가까이하기 쉬운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술 마시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조성되어 술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히로뽕이나 대마초 등의 약물과는 달리 술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1][2]. 또한 최근 들어 대학에서는 신입생 환영행사나 학교행사의 일부로 음주가 강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으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위험성은 음주가 다른 약물(예: 마리화나, 코카인)의 사용이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조사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 음주율은 90%이상으로 일반 성인 음주율인 64.3%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3]. 즉, 대부분의 대학생이 음주를 하며, 성인보다 더 음주를 하고 있으며, 대학생 음주는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적 음주를 넘어 문제음주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과음 혹은 폭음을 하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 기억력의 저하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친구를 비롯한 가족,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이나 두려움 혹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성인보다 더 빨리 알코올 의존에 이르게 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4][5][6]. 그러므로 음주의 오·남용은 대학생들의 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대학생들의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불의의 사고를 가져오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성관계로 원치 않는 임신 등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매년 빈발하는 대학생의 음주관련 사망사고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

의 음주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동안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가족의 음주문제와 음주행동, 가족의 음주태도와 부모자녀의 정서적 관계, 또래의 음주행동, 음주또래친구의 유무와 같이 사회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대학생들의 인간의 능동적, 인지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와 음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음주관련 요인이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간의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주행동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

알코올 남용의 원인과 예방 인간관계에 관한 이론들은 개인이 알코올 또는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결정에 대해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밝혀내고 있는데[7], 이러한 이론 중 반두라[8]의 사회학습이론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사회환경 영향을 설명하는데 가장 잘 알려진 모델이다. 즉, 믿음이 대학생들의 역할모델, 특히 부모나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획득되며 이 획득된 음주와 관련된 인지는 학생들의 음주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가정한다. 사회학습이론의 기본적인 두 가지 가정 첫째, 음주는 일반적 대처기제라는 것과 둘째는 대처방식으로 선택한 음주는 과음과 알코올 남용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을 충족시키는 사회학습이론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에는 대처수단 음주, 음주기대, 자아통제(자기효능감)가 있다. 대처방식으로 선택한 음주는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이유 중 10~25%가 이에 해당한다. 몇 개의 임상연구에서도 부적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9][10]. 학생들의 음주문제 예방에 적합한 관점으로 최근 관심을 모으는 것이 알코올 연구에서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으로서 기억에 기초한 반두라 인지적학습이론(cognitive social learning theory)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연구에 의하면 음주기대와 음주행동 문제에 정적인 관계를 가진

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1][12]. 또한 음주행동 및 음주관련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인 혹은 인지적인 취약함을 의미한다[13][14][15]. 이러한 취약성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이나 지속적인 환경적 긴장이 있을 때 상호작용하여 음주행동과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알코올을 사용한다는 생각이 상당히 보편적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은 스트레스가 음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보다 정교화 시켜 음주행동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변 환경과 대처 양식 및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는 모든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다양하고 급속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정서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의 영향은 크고 음주를 스트레스의 대처전략으로 삼게 되면 음주로 인한 문제가 증가되어 또 다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취약성모델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처럼 대처방식, 음주기대 역시 음주에 대한 직접적인 주효과를 가지지만 이들 변인들과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이 더 핵심적인 역할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음주관련 문제의 위험에 대한 인지가 적어서 관련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 개입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된 바 있다[16].

2. 음주행동요인

음주행동요인으로서 첫 번째,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음주를 통해 감소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와 긴장은 음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 감소이론에 의하면 음주자는 술이 긴장완화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습득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17]. 학생들의 음주요인이 음주행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삶의 일부이며, 어떤 요구에 대한 신체의 불특정 반응으로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자극요인에 의해 경험하게 되며, 어느 정도까지는 생존과 안녕에 필요한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부적응 상태가 되어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며, 질병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가족 경험과 부적절한 교우관계,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만족이 여러 가지 생활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18].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대학생들의 음주영향요인 음

주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20][21]. 이와 같이 학생들의 음주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학생들의 음주예방에 있어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트레스가 음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교우(선후배)관계는 대학생들의 음주 및 약물남용의 음주행동에 매우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교우 집단에서의 영향은 특정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같은 모방을 통하여 발생하며, 음주와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한 교우 집단의 모델링뿐만 아니라 친구의 음주권유 혹은 음주압력 또한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22]. 또한 국내연구[23][24]에 의하면 교우(선후배)관계의 영향은 대학생들의 음주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대한 교우관계가 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학생 음주문제 예방에 있어 교우관계의 영향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교우관계영향이 음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음주기대와 음주행동은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음주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알코올기대이론은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음주행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즉 음주로 인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좀 더 긍정적인 초기 음주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좀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연구 또한 긍정적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빈도가 높아지며, 부정적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빈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25]. 많은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아주 가까운 친구들을 포함한 동료들의 음주규범과 음주에 대한 기대가 음주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26][27][28][29].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음주기대가 학생들의 음주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주요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음주기대가 음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네 번째, 자아통제는 인지적 요인으로써 특정한 상황의 환경적 자극을 자신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하며 통제의 소재(locus of control)를 말한다[30]. 자아통제는 가족, 친구로부터의 역할 모델뿐만 아니라 그들 역할 모델들이 보이는 음주 사용에 대한 호의적 태도나 언급 등이

역할모델이 되어 선동과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음주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자이통제가 높을수록 절주행위 이행정도가 높았다고 보고되었다[31]. 따라서 자이통제는 대학생 음주와 관련된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자이통제가 음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섯 번째, 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음주요인에서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모델링(modeling)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으로 특히 타인의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와 연결되거나 관찰대상인 역할모델이 관찰자가 존경하는 인물(예; 부모)일 경우 모델링의 효과는 커져 관찰한 행동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반두라는 주장한다. 음주에 대한 가족력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신경심리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증명되고 있다[32]. 문제음주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 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들도 많다. 이에 국내 대학생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음주문제와 부모의 음주에 대한 태도 등 가족의 영향이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33][34]. 이는 학생들의 음주문제 예방에 있어 가족의 태도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가족영향이 음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3. 태도와 음주행동

Bandura는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모델링을 통해 학습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승인된 음주의 태도나 음주행동에 노출된 학생은 내면의 한 부분으로써 그들의 신념과 판단을 구체화하게 되어 음주동과 음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며,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서부터 사회적 음주, 알코올 남용에 이르기까지 학습과 인지에 의해 음주행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한 음주행동에 있어 매개적 인지기제는 가족, 친구로부터의 역할 모델뿐만 아니라 그들 역할모델들이 보이는 알코올사용에 대한 호의적 태도나 언급 등도 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역할모델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국내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태도가 학생들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 유의미성과 개인의 음주행동과 친구들의 음주행동에 많은 일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음주의 영향력 있는 요인이 친구의 음주형태와 태도라

는 것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35][36]. 그리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심리적 음주요인들이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이 요인들이 음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관계되는 음주태도를 규명함으로써 이러한 음주태도가 음주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음주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변인들을 탐색하고 각 변인이 대학생들의 음주행동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인과모형에서는 외생변수로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이통제, 가족영향, 매개내생변수로 음주태도를 설정하였고, 내생변수로서 음주행동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요인 즉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이통제, 가족영향은 음주태도 및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정립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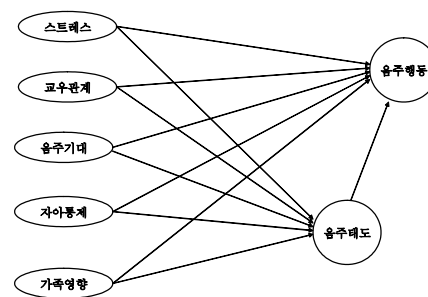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 가설 설정

앞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외생변수로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이통제, 가족영향을 설정하였고, 매개내생변수로 음주태도를 설정하였으며, 내생변수로서 음주행동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따라 표 1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구분	내 용
가설 1	스트레스는 음주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교우관계는 음주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음주기대는 음주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이통제는 음주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가족영향은 음주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스트레스는 음주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교우관계는 음주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음주기대는 음주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자이통제는 음주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0	가족영향은 음주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음주태도는 음주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3.1 음주요인

첫째, 스트레스는 정서조절반응으로서 학생들은 불안이나 교우집단의 압력에 민감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음주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Bandura에 의하면 약물중독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재발의 거의 70%가 대인관계상의 갈등이나 사회적 압력 등의 고위험 상황(high risk situations)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을 5개 문항 ①학교교수에 대한 불만족 ②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③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④나의 신체적 열등감 때문에 ⑤나의 성격 때문에 정도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교우관계는 점차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사회적관계의 중심이 부모에서부터 친구와의 관계로 이동하여 교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교우집단으로 부터의 거절경험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 부적절성, 외로움, 분노로 연결되어 결국 음주행동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야기한다고 하였다[3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에 대한 측정을 4개 문항 ①친구가 술을 권하면 거절하기 힘들 것임 ②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술을 마시

야 됨 ③이성친구 교체 시 술 생각이 나서 ④친구들이 술을 마시면 같이 마셔야하는 정도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셋째, 음주기대는 음주행위에 대한 긍정적기대가 개인의 음주를 결정하는 요인이며, 기대란 특정행동에 대한 특정결과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라 하면서 음주와 관련해서 기대를 적용하며 술을 마시는 행동은 긴장이 풀어진다는 행동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3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기대에 대한 측정을 5개 문항 ①술을 마시면 교우관계가 쉬울 것 같아서 ②술은 모임을 재밌게 해줄 것 같아서 ③술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게 할 것 같아서 ④술은 사람을 친근하게 해줄 것 같아서 ⑤술을 마시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 같아서 정도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넷째, 자이통제는 사회 환경적 자극을 자신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 음주로 긴장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는 개인, 또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 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인지하는 개인은 음주를 통해 점차 음주에 의존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이통제에 대한 측정을 6개 문항 ①자신의 생활을 통제 못해서 ②자신의 성공은 행운 때문이라 생각해서 ③타인이 자신의 생활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서 ④문제처리를 잘 못해서 ⑤제때에 일을 착수할 수 없어서 ⑥목표를 성취해 본 일이 거의 없는 정도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섯째, 가족영향은 가족 중 부모와 자녀간의 애정적 관계와 부적절한 부모역할이 음주행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으며, 결국 청소년의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유형 형성에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국내 선행연구들도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음주행위 간에는 일관성 있고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3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영향에 대한 측정을 7개 문항 ①부모님은 나를 이해 못해서 ②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③내가하는 일에 간섭을 해서 ④나를 매우 화나게 해서 ⑤부모님이 지나치게 잔소리를 해서 ⑥부모님이 남과 비교하고 이야기해서 ⑦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정도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 음주태도

음주태도는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와 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 등이 대학생들의 음주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라면서 허용적인 음주문화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음주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게 되며, 언제든지 술에 접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다[4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태도

에 대한 측정을 6개 문항 ①호기심에 1~2번 정도 술은 괜찮을 것 같아서 ②기분이 좋아지면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서 ③술을 사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서 ④친구와 화해 시 술은 괜찮을 것 같아서 ⑤특별행사 시 술을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⑥어른들과 술을 마시면 괜찮을 것 같은 정도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 음주행동

음주행동은 Bandura에 의하면 기본적 가정은 행동은 역동적이며, 서로 동시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개인에 의존한다는 상호결정론의 개념을 얘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행동에 대한 측정을 5개 문항 ①나는 최근 음주를 한 적이 있는지 ②나는 최근에 음주를 하고 나쁜 행동이나 욕을 한 적이 있는지 ③나는 최근 음주를 먹고 싶은 충동이 있는지 ④나는 최근 친구들과 음주를 한 적이 있는지 ⑤나는 최근 음주를 하고 폭력행사나 규범을 어긴 적이 있는지 정도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IV. 실증분석

1. 표본선정 및 특성

본 연구에서 가설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재구성된 설문지를 2010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속표본의 추출방법은 할당표본 추출(quota sampling)과 판단표본 추출(judgement sampling)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 219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설문응답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Samples

변수	구분	대학생 (명/%)
성 별	남 성	139/63.5
	여 성	80/36.5
	합계	219/100
월 용돈	5만원이하	3/1.5
	10만원이하	12/5.3
	15만원이하	38/17.4
	20만원미만	39/17.8
	20만원이상	127/58
합 계	219/100	

변수	구분	대학생 (명/%)
학교지역	광주광역시	121/55.2
	전라남도	98/44.8
	합계	219/100
주거지역	광주광역시	122/55.5
	전라남도	97/44.5
	합 계	219/100

2.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의 내용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대학생 음주행동과 관련한 문항을 개발한 다음 요인의 측정항목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로 표 3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나타냈다. 사전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일련의 연구요인들을 확인하였고, 설문을 재구성한 후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문항들을 데이터 축소하여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 음주태도, 음주행동 등 7개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KMO는 0.868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8개의 요인에 대해 베리맥스 직교회전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여 행렬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 개념을 다항목으로 표 3과 같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분석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14.0을 이용하였으며, 항목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근거한 신뢰도 측정방법인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α 계수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 음주태도, 음주행동 등 7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요인들의 측정을 위해 구성하는 항목들은 신뢰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5.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48]. 확인적 요인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모형 검증결과로 도출된 전반적인 적합도지수는 표 3과 같다. 먼저 카이제곱 값은 2910.441, 자유도는 644, χ^2 에 대한 p 값은 0.062로, 유의확률의 값(p = 0.05)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 분석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도, 표준적합지수(NFI), 상대적합지수(R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고, RMSEA(근차오차평균제곱근차)값이 0.08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분석 모형은 표본자료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적합도지수,신뢰도
Table 3. Goodness-of-fit Index and Reliability of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Results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1.스트레스	v1	.883					
	v2	.863					
	v3	.681					
	v4	.786					
	v5	.766					
2.교우관계	v6		.610				
	v7		.606				
	v8		.635				
	v9		.601				
3.음주기대	v10			.829			
	v11			.748			
	v12			.805			
	v13			.797			
	v14			.685			
4.자아통제	v15				.691		
	v16				.665		
	v17				.683		
	v18				.746		
	v19				.720		
	v20				.736		
5.가족영향	v21						
	v22				.799		
	v23				.781		
	v24				.697		
	v25				.761		
	v26				.760		
	v27				.792		
6.음주태도	v28					.757	
	v29					.734	
	v30					.783	
	v31					.604	
	v32					.786	
	v33					.750	
7.음주행동	v34						.679
	v35						.808
	v36						.608
	v37						.682
	v38						.723

표3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적합도지수,신뢰도(계속)
Table 3. Goodness-of-fit Index and Reliability of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Results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eigen value	3.767	2.409	4.510	2.098	3.549	4.848	3.208
분산비율	9.913	6.339	11.869	5.521	9.341	12.758	8.441
누적비율 (%)	9.913	16.252	28.121	33.642	42.983	55.741	64.182
신뢰도 Cronbach Alpha	.678	.905	.886	.803	.835	.884	.816
모형적합도 지수	$\chi^2(644) = 2910.441, p = .062,$ NF = .866, RFI = .831 IFI = .908, CFI = .906, RMSEF = .072						

3. 변수간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변수에서 7개 요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4에서와 같이 음주기대와 음주태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0.7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우관계와 음주기대 간의 분석결과치가 0.574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으며, 교우관계와 음주태도는 0.528, 음주태도와 음주행동은 0.465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대부분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상관관계분석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변수	스트레스	교우관계	자아통제	음주기대	가족영향	음주태도	음주행동
스트레스	1						
교우관계	.127	1					
자아통제	.421**	.180**	1				
음주기대	.282**	.574**	.215**	1			
가족영향	.424**	.222**	.387**	.207**	1		
음주태도	.256**	.528**	.252**	.740**	.249**	1	
음주행동	.304**	.308**	.381**	.453**	.366**	.465**	1

*0.05수준(양쪽)에서 유의함,**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4.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4.1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외생변수, 즉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은 매개내생변수,

즉 음주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내생변수인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의 음주영향요인이 음주행동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인과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Overall model fit) 지수는 표 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카이제곱 값은 849.189, 자유도는 472, χ^2 에 대한 p값은 0.000으로 유의확률의 값(p=0.000)이 0.05보다 작아 연구모형과 분석 자료가 적합하다. 또한 다른 적합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표준적합지수(NFI), 상대적합지수(R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다. RMSEA(근차평균제곱근차이)값은 0.08보다 적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구모형은 표본자료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Table 5. Goodness-of-fit Index of Research Models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대적합지수				
	χ^2 (p)	df	RMS EA	RMR	GFI	AGFI	NFI	RFI	IFI	CFI
적합지수	849.189 (.000)	472	.061	.043	.808	.871	.895	.870	.897	.896

4.2 가설검증

가설검증은 가설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변수를 측정한 다음 여기서 얻은 표본의 특성치를 이용하여 가설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외생변수, 매개내생변수, 내생변수 등 구성개념 간의 영향관계를 AMOS를 통해 얻은 표본의 특성치인 경로계수와 고정지수(t값) 등을 가지고 유의수준 0.05에서 채택여부를 검증하였다. 각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와 조절효과 검증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음주요인인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이 음주태도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음주태도가 음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생의 음주요인인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이 음주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5>까지 검증한 결과 음주기대(경로계수 .758, p 값은 .000)만이 음주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음주요인인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가족영향이 음주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6-10>까지를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와 교우관계를 제외한 음주기대(경로계수 .438, p 값

은 .004), 자아통제(경로계수 .323, p 값은 .000), 가족영향(경로계수 .356, p 값은 .003)은 음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음주태도가 음주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1>를 검증한 결과 음주태도는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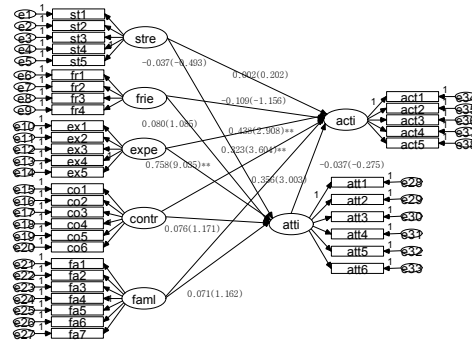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검증결과
Fig. 2. Investigation Results of Research Models

1. 경로계수(t값)
2. * : P < 0.05 ** : P < 0.01
- 3.stre:스트레스, frie:교우관계, expe:음주기대, contr:자아통제, faml:가족영향, atti:음주태도, acti:음주행위

그림 2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 구조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음주기대는 음주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음주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음주태도는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분석결과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대학생의 음주 관련요인이 음주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결과로 분석문항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신뢰도 분석 및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들은 연구모형 및 가설의 검증 과정에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AMOS 5.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와의 해석에 기초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해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음주요인인 교우관계, 음주기대, 가족영향의 변수는 음주기대에 대한 변수만 음주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학생들의 음주요인인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아통제는 음주기대,

자이통제, 가족영향의 변수가 음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나 교우 관계보다는 가족의 영향이나 본인의 신념과 음주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다든지, 사교모임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 주는 등의 긍정적 음주기대가 학생들의 음주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있어서 음주요인인 음주기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들의 음주태도는 음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음주태도는 스트레스나 교우관계의 영향보다는 자신의 의지나 신념에 의해 술을 마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음주요인이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대학생들의 음주요인이 음주행태에 미치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대학생들의 음주기대는 음주의 상황적 요인(친구의 권유, 스트레스정도)의 영향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인식에 바탕을 둔 음주기대와 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들의 음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학교 내 예방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프로그램과 알코올중독자 가족자녀 등 문제를 가질 위험이 평균이상인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선별적 프로그램, 그리고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시적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최상의 장은 대부분의 학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사이버)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겠다. 음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음주와 관련된 교우 선후배집단의 압력, 잠재적 문제상황(또는 스트레스원인)과 같은 위험요인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음주거부기술훈련, 인지재구조화작업 등을 강조하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켜야겠다.

둘째, 음주요인인 가족의 영향은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음주요인으로 제시된 영향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있어 가족음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학생들의 음주예방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지역사회복지관과 학교와 연계하여 가족의 참여를 유도해 내어 방학 전 음주, 흡연 등과 관련된 예방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겠다.

즉, 가족 간의 관계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를 부여하여 해결하고 이를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가족에게 배포하여 가족역할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교육과 더불어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우리의 음주문화를 재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음주문화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음주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시사점으로 초·중·고·대학교의 교육과정에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과목을 신설하고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양성 및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약물 남용 예방을 위한 교과목을 신설, 이수토록 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보건당국이 음주문화를 바꾸려는 노력과 학생들이 적절하게 음주를 사용하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증세해야 하는 음주예방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학 내의 보건실을 중심으로 하여 음주문제를 학생들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포함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하고 학생들의 음주문화와 음주규범을 변화시킨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음주요인들을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음주 관련요인이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혀봄으로써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정보제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Jang In gyeong, "Study on the Relation of Drinking Behavior with Stress, Alcohol Expectancy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3.
 [2] Hong Sun myeong et al, "Drinking Types, Examination of Recognition and Comparative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in Ulsan", Domestic Science Theses, 2006, York: Cambridge, 1990.

- [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9.
- [4] Kang Ji eun, "Improvement through a Survey of Alcohol Consumption and Habits of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2009.
- [5] Song Ji yeong, "Perception and Pattern of Alcohol Consumption and Their Effects on Health Related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angji University, 2008.
- [6] Ho Sann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Drinking and Risk ·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on Drinking Behavior",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4.
- [7] Smith, G. T. & Goldman, M. S. Alcohol Expectancy Theory and the Identification of High-Risk Adolescents, IN G. M. Boyd et al. (Eds.),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85-104, 1995.
- [8] Bandura, A.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pp. 122-147, 1977.
- [9] Cooper, M. L., Russel, M., Skinner, J. B., Frone, M. R., & Mudar, P. Stress and Alcohol Use: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coping and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1), 139-152, 1992.
- [10] Keefe, Keunho. 1994. Perceptions of Normative Social Pressure and Attitudes toward Alcohol Use : Change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Study on Alcohol". 55, pp. 45-46.
- [11] Sim Mi yeong, Kim Gyohye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uicidal Idea of Korean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 of Sex and Developmental Period,"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agazine Health, Vol, 10, No, 3, pp, 313-325, 2005.
- [12] Cho Hui, "Construction of Prediction Model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Drinking Behavior,"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0.
- [13] Kim Ui suk,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tress on Drinking Behavior and Drinking Issues,"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2.
- [14] Yun Hye mi, "Drink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nd Factors Influencing on Drink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 Living Research Institute, Research Center for Living Science, No, 3, pp 115, 2000.
- [15] Jeon Jong seol, "A Study on the Dual Diagnosis of substance Dependence and Mental Disorders among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Youth Science Research, Vol,15,No,6,2005.
- [16] Ellis, D. A., Zucker, R. A. & Fitzgerald, H. E. 1 The Role of Family Influences and Risk.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21(3), 216-218, 1997.
- [17] Goldman, M. S., Brown, S.A., Christiansen, B. A. Expectancy Theory; Thinking about Drinking, in H.T. Blane & K.E. Leonard(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ew York: Guilford. 181-226, 1987.
- [18] Jeon Soja, "Drink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nd Physical · Cognitive · Psychological · Social Influencing Factors," Master's Thesis, Kongju University, 2005.
- [19] Kim Yong seok, Park Myeongsuk, "Parenting as a Common Factor to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Focused on Adolescent Alcohol Use and Delinquency, Korea Academy of Social Welfare Vol, 42, pp, 83-106, 2000.
- [20] National Youth Committee, "Investigation and Analyzing Research on Juvenile Drinking," 2000.
- [21] Han So yeong,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Influencing on Drinking Issue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02.
- [22] Szalay, L. B., Strohl, J. B., & Doherty, K. T. Kluwer Academic Publis. "Psychoenvironmental Forces in Substance Abuse Prevention", 2002.
- [23] Kim Yong seok, "Relation of Motivation, Behavior and Issues Related to Drinking as an Alternative Means, Focused on Students of Gyeonggi-do and Incheon,"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9(1), p, 522, 2000.
- [24] Choi Eun mi, "Study on the Social Support for Alcoholics and Recurrence,"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1.
- [25] Park Hui suk, Ha Jeonghui, "The Effects of the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Level and Adolescent's Emotional Autonomy on Anger Expression Method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Youth Research, Vol, 18, No, 2, 2007.
- [26] Burda, P.C. & Vaux, A.C. "Social drinking in Supportive contexts among college mal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2), 165-171, 1988.
- [27] Jang Seun gok, "Trends in Drinking Behavior and Judging

- Norms about Problem Drinking, 1996~2000,” Youth Science Research, Vol, 8, No, 2, 2001.
- [28] Pi Sang sun al, “Influences of Perceived Stress, Disfunctional Attitud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Coping Style on Maladaptation in the Adolescents with Substance Abus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Neuropsychiatry, 39(2), 2000
- [29] Han Seongyeol et al, “Relation between Drink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nd Social Variable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ducation Collection of Treatises 27,pp, 31-57,1997.
- [30] Aneshensel, C. S. Social Stress :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15-38, 1992.
- [31] Chae Hyo suk, “Factors Influencing Drin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Using Health Belief Model,”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2001.
- [32] Marlatt, G. A., Kostum, C. F., & Lang, A. R. Provocation to anger and opportunity for retaliation as determinants of alcohol consumption in heavy drink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4, 652-659, 1975.
- [33] Yu Chae yeong, “Study on Changing Motivation of Drinkers: Focused on the Analysis of Motivation Models,”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2000.
- [34] Jeon So ja, “Drink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nd Physical · Cognitive · Psychological · Social Influencing Factors,” Master’s Thesis, KongJu University, 2005.
- [35] Kim Yong seok, Kim Jeongwu, Kim Seongcheon, “A National Study on Adolescent Alcohol Use,” Korea Academy of Social Welfare, Vol, 47: pp, 71-106, 2001.
- [36] Kim Yong seok, Kim Jeongwu, Kim Seongcheon, “A National Study on Adolescent Alcohol Use,” Korea Academy of Social Welfare, Vol, 47: pp, 71-106, 2001.
- [37] Kupersmidt et al.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s”. IN Asher, S. R., and Coie, J. D.,(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1990.
- [38] Abrams, D. B., & Niaura, R. S. Social Learning Theory. IN H. T. Blane & K. E. Leonard(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Y: Guildford Press, 131-178, 1987.
- [39] Ellis, D. A., Zucker, R. A. & Fitzgerald, H. E. The Role of Family Influences and Risk.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21(3), 216-218, 1997.
- [40] Kim Yeong mi, “Model Study of Adolescent Drinking and Parent’s Direct · Indirect Influence,” Korea Academy of Social Welfare Spring Academy Conference, 2004.

저 자 소 개



정 명 속

2005 :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학석사.

2007 : 조선대학교 대학원행정
(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현 재 : 고구려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 경영정보공학

Email : jmsuk@kgrc.ac.kr